

# 짐 스피겔 박사, 종교철학, 세션 16, 신성한 성육신과 삼위일체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신성한 육신과 삼위일체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기독교 유신론의 핵심인 두 가지 교리, 즉 신성한 육신과 삼위일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이러한 교리의 맥락에서 매우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이러한 문제를 엄격하고 철학적으로 정보에 입각한 방식으로 다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리와 관련된 철학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성한 성육신에 대한 정통 기독교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중적 본성을 지녔지만 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시며, 이는 즉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군가가 신인(God-man)이 되어 진정으로 신성을 유지하면서도 진정으로 인간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실제로 초기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면서 겪었던 문제입니다.

초기 교회 신학자 중 일부가 이를 합리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려고 시도하면서 수많은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먼저 모순, 역설, 신비의 세 가지 구별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순은 정확히 같은 명제를 긍정하고 부정할 때 발생합니다.

반면 역설은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실제 모순은 아닌 것,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순이 아닌 것입니다. 미스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진실이며, 역설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성한 성육신 교리에 관해서 토마스 모리스는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다루는 데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약 30년 전에 쓴 책 *The Logic of God Incarnate*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읽은 것 중 가장 좋은 책입니다. Thomas Morris는 Fortune 500 기업에서 특히 윤리에 대한 동기 부여 연설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정말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가 쓴 *If Aristotle Ran General Motors*라는 책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는 옛날에 기업에서 비즈니스 윤리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고, 큰 인기를 얻었고, 너무 비싼 가격을 요구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 교사직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외에도 그는 종교에 대한 엄청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본질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 하는 구별 중 하나가 있습니다. 본질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없다면 사물이 그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용하게 구별할 수 있는 본질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절한 본질과 대조되는 개인적 본질입니다. 개인적 본질은 특정 사물이 소유한 모든 속성으로 정의됩니다.

당신의 개별적 본질은 당신이 소유한 모든 자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당신으로 만듭니다. 당신에 대한 이 모든 사실들이 당신을 당신인 특별한 것 또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친절한 본질과는 반대로, 친절한 본질은 누군가가 계급이나 종류의 구성원이 되는 데 개별적으로 필요하고 공동으로 충분한 모든 속성으로 정의되므로, 당신은 단지 고유한 개별적 본질을 가진 특정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인간으로서 친절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류의 일원이 되는 데 개별적으로 필요하고 공동으로 충분한 모든 자질과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포유류의 일원입니다. 당신은 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젊음을 낳는 존재입니다. 혹은 당신이 남자라면, 젊음을 낳는 누군가를 임신시키는 측면에서 그것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당신은 손톱과 발톱이 있습니다. 당신은 척추동물입니다. 당신은 포유류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이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고,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포유류라는 것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포유류의 일원이군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속한 온갖 다른 계급과 종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고 특정 속성을 갖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별적 본질과 친절한 본질.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신성한 성육신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 본성을 가진 한 인격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개별적 본질, 특정 인격으로서의 그의 독특한 본질이 완전한 인간적 본질과 완전한 신성한 친절한 본질의 모든 속성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그러한 필수 조건이 무엇이든, 인간의 몸을 갖는 것, 인간의 영혼을 갖는 것, 인간의 마음을 갖는 것을 포함하여, 예수는 그러한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 신성해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예수는 또한 그러한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능하고 전지전능했으며, 전지자비했으며, 등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개별적 본질은 모든 필수적인 신적 및 인간적 속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게 아이디어입니다. 제 그래픽은 그다지 정교하지 않지만, 아이디어는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성한 화신에 대해 생각할 때 개인과 친절한 본질의 구별이 유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의가 제기됩니다. 예수는 인간으로서 필요한 몇 가지 특성이 부족하지 않나요? 맞죠? 그는 인간 아버지에게서 잉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인간 아버지에게서 잉태되지 않은 다른 인간을 보여주세요. 글썄요, 그것은 우리를 또 다른 구별로 이끌고, 그것은 공통 속성과 필수 속성 사이의 구별입니다. 공통 속성은 필수 속성과 대조적으로 계급이나 종류의 많은 또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소유한 특성입니다.

필수 속성은 어떤 사물이 클래스나 종류의 일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인간에게 공통적인 속성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손이 하나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손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그들은 두 손이 없다는 흔치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발달되었더라도 인간답게 살려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통 속성이 필수적인 속성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의 경우, 그는 인간 아버지에게서 잉태되었다는 일반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특성이 부족했습니다. 맞죠? 모든 인간 또는 거의 모든 인간이 특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필수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인간이 배꼽이나 배꼽 흉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너무 흔해서 우리는 배꼽 흉터를 흉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배꼽이 없는 드문 경우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탯줄을 제거했을 때 너무 잘 치유되어서 배꼽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거나 심지어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더 잘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흥터가 덜해요. 어쨌든 대부분 사람들은 배꼽 과 배꼽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흔한 속성이예요. 필수적인 건 아니예요.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당신을 인간으로서 실격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간 아버지에게서 잉태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것은 흔하지 않지만, 그것이 그를 진정한 인간으로서 실격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 인간 아버지에게서 잉태되는 것이 인간인 데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두 인간, 아담과 이브가 역사적으로, 아시다시피, 실제 역사적 인물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인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중 누구도 배꼽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누구였든 최초의 인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아시다시피, 그들은 인간 아버지에게서 잉태되지 않았다는 흔하지 않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반론이 있습니다. 예수가 분명히 신성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시다시피,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는 원할 때마다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세 번째 구별로 이끕니다. 그저 인간인 것과 완전한 인간인 것의 구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려면 그저 인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류의 본질에 필수적인 모든 특성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는 모든 필수적인 인류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신성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그저 인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는 인간이었고, 더하기. 인간 더하기 무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 더하기 신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인간적 속성과 신적 속성 사이에 모순이 없는 한,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비평가가 거기에서 잠재적인 모순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예수의 인간적 본성과 신적 본성 사이에 어떤 종류의 모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완전히 인간이지만, 그는 인간에 더해 신성합니다.

그는 인간 그 이상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어떤 것들을 몰랐다는 진술은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그의 재림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매우 당혹스러운 구절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나요? 모리스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전략을 논의합니다. 하나는 빌립보서 2장을 기반으로 예수가 자신을 비우면서 전지성을 포함한 자신의 신성한 속성 중 일부를 포기했다고 말하는 케노시스주의적 접근 방식입니다. 그것이 그가 돌아올 시간을 모르는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신성을 포기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예수의 전지성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그가 신성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듯합니다. 더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접근 방식은 두 가지 생각의 관점입니다.

예수는 서로 비대칭적인 관계를 지닌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 마음은 다른 마음에 전지전능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리스가 편애하는 견해입니다. 그는 의식과 무의식,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비유를 들며, 각 경우 하나는 다른 마음에 접근할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다른 마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게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예수가 문자 그대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가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24장에 제시된 철학적 난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가 아버지가 그의 재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접근하지 않기로 한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효과가 있는 다른 이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신의 성육신 교리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을 해소하고 그것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떤 비판을 기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것을 다소 신비롭게 만드는 특정 성경 본문에 비추어 발생하는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리의 신의 성육신이 적어도 신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역설은 아니더라도 모순은 아니지만요.

그럼, 이제 삼위일체 교리로 넘어가 봅시다. 정교회의 신 교리는 그가 삼위일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을 신으로 언급하는 여러 구절에서 추론됩니다.

세 가지 모두를 언급하는 구절이 한두 개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대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교리를 가르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명시적으로 목표로 삼지 않으셨지만, 대명령에서 그 언급을 하셨다는 사실은 이 방향을 가리키는 매우 강력한 지침입니다.

그는 다른 여러 구절을 얻었습니다. 구약성서로 돌아가서, 히브리어 용어인 엘로힘의 사용은 일종의 복수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구절들은 성령, 성부, 성자를 개별적으로 신성하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철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일관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이 세 분이면서 하나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노골적인 모순이 아닌가요? 글썄요, 삼위일체 교리가 신이 같은 의미로 세 분이면서 하나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이고, 다른 의미에서는 셋입니다. 신은 세 인격으로 된 하나의 존재 또는 실체 또는 본질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다신교도라는 무슬림 친구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존재의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라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구별을 간과합니다. 그는 하나의 존재이지만 세 인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답: 예수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인간 경험에서 아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즉, 인간이 생식을 통해 아이를 낳듯이, 저는 네 명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들 중 누구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번식에 관여했다. 그들은 나와 아내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고 태어났다. 그것은 이 인류 본질의 영속을 보장했는데, 흥미롭게도, 나는 그것이 신성한 삼위일체와 실제로 평행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아들이 합일에서 나오듯이, 죄송합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합일에서 나오며, 당신은 덜 신성하지 않은 세 번째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지만, 아들은 덜 신성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태어났지만요. 그러니, 우리가 피해야 할 몇 가지 이단적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달리즘으로, 삼위일체의 각 인격이 신의 다른 모드 또는 표현이라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신성한 인격의 진정한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지지하는 특정 종류의 오순절주의가 있는데, 이는 모달리즘의 한 버전입니다. 또 다른 이단적 극단은 삼신론으로, 삼위일체의 각 인격이 별개의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다신론이라는 점인데, 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일성을 배제하고 복수성을 강조하거나, 단일성을 배제하고 복수성을 강조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정통적인 관점은 이러한 극단 사이의 일종의 중용입니다. 이제, 여기에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구분이 있는데, 이는 동일성의 is와 술어의 is 사이의 구분과 관련이 있는 철학적 구분으로, 여기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성의 is는 하나이고 같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카스타가 오이디푸스의 어머니라고 말한다면, 제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이고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이디푸스가 너무 늦게 자신이 실제로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괴로움에.

정말 끔찍한 깨달음입니다.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왜 그가 머리에서 눈을 뽑아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에 화가 났을 때 왜 눈구멍에서 눈을 뽑아내는 걸까요?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확실히, 그것은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그것이 정체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무언가와 하나이고 동일하다고 말하고 싶을 때

그러면, 술어의 is는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is라는 단어를 특정한 특성을 갖는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제가 Jocasta가 금발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녀가 금발과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녀가 금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삼위일체 교리는 아버지가 신이고, 아들이 신이고, 성령이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동일성보다는 술어의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버지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만이 아니라, 영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들, 영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이러한 인격들 각각은 신성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함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인 경우, 아들이 성령인 경우, 성령이 아버지인 경우 매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들은 별개야. 하지만 그들은 모두 신격 안에 있는 신성한 인격이야.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화신과 삼위일체와 관련된 몇 가지 철학적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신의 화신과 삼위일체입니다.